

고등학교 <사회문화> 수업지도안

2018-11335
교육학과 한지영

I. 개요

- ▶ 학습 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 ▶ 학습 주제: 기능론과 갈등론
- ▶ 학습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25명/5인 1조)
- ▶ 학습 목표
 - 1)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2)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 ▶ 학습 도구: 유인물 (혹은 태블릿), 슈잉캔디
- ▶ 수업 시간: 50분

II. 수업지도안 개발의 논리

본 교수학습과정안은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때,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는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유발하기 위한 9가지 외적 상황으로, 주의 획득, 수업 목표 제시, 선수학습 회상 자극, 자극 제시, 학습 안내,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평가, 파지와 전이 높이기를 의미한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5).

본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사회문화 수업이다. 학습 단원은 사회문화 과목의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로, 이 단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특징, 사회 과학의 최근 경향,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수업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중 하나인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수업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수업은 1) 개별 활동보다는 조별 활동이 많고 2) 수업 중 부여되는 학습과제의 양이 적은 편이며 3)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지 않기에 학습 도구는 유인물로 설정하였다. 다만, 태블릿 사용이 가능한 수업 환경에서는 유인물을 파일화하여 태블릿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을 시작하는 '주의력 획득'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다루고 있는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뉴스 시청을 통해, 학습자가 해당 현상을 분석하는 시야 - 내지 관점 - 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 개념을 다루기 전에, 해당 개념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에 속한다는 사전지식을 학습자가 회상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본격적인 수업에서는 두 가지 '자극자료'를 제시하여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설계하였다. 우선, 기능론을 다룰 때는 해당 이론의 전제인 사회 유기체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기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그림을 활용하였다. 인간의 몸을 사회로, 몸을 구성하는 장기를 사회 체계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어지는 '학습안내 제시' 단계에

서 학습자가 유인물 [활동 1]에서 나온 문장을 재해석함으로써 기능론의 핵심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등론을 다룰 때는 사회의 희소자원 분배 과정을 모두마다 쉐어링카드를 사용하여 구현해보도록 함으로써,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학습자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어지는 ‘학습안내 제시’ 단계에서 [활동 2]를 통해 모둠 활동에서 경험했던 요소가 갈등론의 핵심 개념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론의 주요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장 완성 문제를 구상하였다.

‘수행 유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를 풀도록 설계하였다. 이후 이어지는 ‘피드백’ 단계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봄으로써 학생들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구성 및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단계는 본 수업(50분)에서 이루어지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예정된 수행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추후 수행평가는 ‘수행 유발’ 단계에서 다룬,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구분하는 객관식 문제 외에도, 학습자가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주어진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서술형 문제도 포함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한 개념을 보다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지와 전이 향상’ 단계에서는 본 수업에서 배운 개념이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개념임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미시적 관점에 속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개념을 다룰 것임을 예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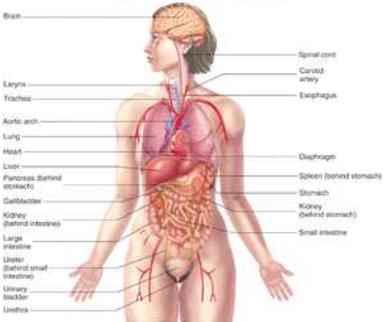
Ⅲ. 수업 청사진

수업 과정	수업 내용
주의력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파업 관련 뉴스를 부분 시청하도록 한다. - 뉴스에서 다루어진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임을 언급하고, 해당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분석하는) 데 있어, 감정적 접근이 아닌, 정교하면서도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사전지식 회상 자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음을 회상하도록 한다. - 거시적 관점은 사회구조나 제도 등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는 사실을 회상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1)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극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론이 전제로 하는 사회 유기체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몸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한다. 1)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장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2) 우리 몸을 ‘사회’로, 장기를 ‘사회 체계’로 비유하는 것을 이해할

	<p>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희소자원 분배 과정을 추잉캔디 분배를 통해 조 내부에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 사회에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으며, 두 계급 간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2) 지배 계급이 사회 제도를 재생산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분배 미션의 조건으로서 제시한다.
학습안내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의 [활동 1] '우리 몸 - 사회, 장기 - 사회 체계'의 비유를 활용하여 문장을 재해석하도록 함으로써, 기능론의 핵심 주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인물의 [활동 2] 1) 추잉캔디 분배 활동에서 나타난 요소를 갈등론의 핵심 개념과 대응시키도록 한다. 2) 추잉캔디 분배 활동 상황을 바탕으로, 갈등론의 핵심 주장을 간단한 문장 완성 문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의 [문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한다.
피드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문제의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봄으로써 학습자가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구성 및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예정된 수행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언급한다. 1) '수행 유발' 단계에서 다룬,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구분하는 객관식 문제 2) 학습자가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주어진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도록 하는 서술형 문제
파지와 전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이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개념임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수업에서는 미시적 관점에 속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예고한다.

IV. 수업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의 사태	실행	시간
<p style="text-align: center;">주의력 획득</p>	<p>교사: 여러분, 최근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를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시청, 일부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5153&pDate=20191015</p> <p>지하철 파업, 최근에 지하철을 탄 분이 있다면 더욱 생생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첫 수업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이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p> <p>학생: 불편해요. /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 잘 모르겠어요.</p> <p>교사: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인 것 같아요. 맞나요?</p> <p>학생: 네.</p> <p>교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데는 물론 이러한 감정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정교하면서도 보편적인 접근도 있어요.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각을 두 가지나 배울 거예요.</p>	<p style="text-align: center;">4분</p>
<p style="text-align: center;">사전지식 회상 자극</p>	<p>교사: 자,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본격적으로 넓혀보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볼게요. 여러분,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어떤 관점이 있다고 했죠?</p> <p>학생: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에요.</p> <p>교사: 훌륭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이론을 언급했던 것, 기억하나요?</p> <p>학생: 네.</p> <p>교사: 좋아요. 그렇다면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중 어느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이었죠?</p>	<p style="text-align: center;">2분</p>

	<p>학생: 거시적 관점이요. / 미시적 관점이요. 교사: 맞아요. / 헛갈릴 수 있어요. 거시적 관점이었죠. 거시적 관점은 사회구조나 제도 등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었어요.</p>	
<p>학습 목표 제시</p>	<p>교사: 그렇다면 정리해보았을 때, 기능론과 갈등론은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학생: 네. 교사: 오늘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사회 체계에 각각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p>	<p>1분</p>
<p>자극 자료 제시 1</p>	<p>교사: 우선 기능론이 사회 체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자, 이 사진을 함께 볼까요? (사진을 띄우며) 이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p>  <p>학생: 인간의 몸이요. 교사: 맞아요. 이 사진을 갑자기 보여 준 이유가 있겠죠? 기능론에서는 ‘사회’가 유기체의 ‘몸’과 같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에요. 사회를 이렇게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을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 중에서도,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이죠? 학생: 장기요. 교사: 좋아요. 여러분은 이제 기능론자에게 빙의해서, 이 ‘몸’을 ‘사회’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이 말한 ‘장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p>	<p>2분</p>

	<p>학생: 개인이요.</p> <p>교사: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장기’는 ‘몸’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테니,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겠죠?</p> <p>학생: 네.</p>	
<p>학습안내 제시 1</p>	<p>교사: 이 비유를 기억한 상태에서, 간단한 조별 활동을 할거예요. 유인물의 [활동 1]을 보시면, 우리 몸에 대한 설명 3가지가 나와 있죠?</p> <p>학생: 네.</p> <p>교사: 여러분이 조별로 할 활동은, ‘사회’와 ‘사회 체계’에 대해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비유를 바탕으로, 3가지 설명이 각각 어떻게 기능론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추론해 보는 것이예요. 시간을 줄 테니 조별로 논의를 해 봅시다.</p> <p>자 여러분,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a 문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1조가 대답해볼까요?</p> <p>학생: 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 체계들은 각자 뚜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p> <p>교사: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b 문장은 어떻게 해석했나요? 2조?</p> <p>학생: 사회 내의 사회 체계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작용한다고 해석했어요.</p> <p>교사: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c 문장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4조는 어떻게 논의했나요?</p> <p>학생: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p> <p>교사: 다들 아주 훌륭하게 추론했네요. 여러분, a, b, c 문장을 해석하면서 느끼기에, 기능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나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p> <p>학생: 조화요. / 균형이요. / 기능이요.</p> <p>교사: 맞아요. 기능론에서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안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사회 체계가 기능하고 있다</p>	<p>9분</p>

	<p>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회는 항상 이렇게 조화롭게 구성 및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p> <p>학생: 아니오.</p> <p>교사: 왜 아니라고 생각했죠?</p> <p>학생: 항상 조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많이 싸우잖아요. / 지금도 안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p> <p>교사: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기능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론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또한, 우리 사회에는 조화와 안정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기능론에서 설명하는 논리는 지나치게 이 두 가치를 강조하죠. 따라서, 기능론의 논리는 사회의 현상 유지를 통해 이익을 계속해서 누리하고자 하는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p>	
<p>자극 자료 제시 2</p>	<p>교사: 자, 다음은 갈등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재밌는 활동 하나를 해 볼 거예요. (각 조마다 츄잉캔디 3개를 나눠준다.) 자, 이제 할 활동에서는 여러분 각 조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조에서 왼쪽 앞에 앉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각 조에서 손을 든 사람이 그 조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p> <p>학생: 네. (웃는다.)</p> <p>교사: 그 사람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권력이 점점 약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권력이 약한 사람이 되죠? 손 들어볼까요?</p> <p>학생: (손을 든다.)</p> <p>교사: 좋아요. 각 조에는 츄잉캔디가 3개씩 주어졌어요. 이 츄잉캔디를 배분할건데, 한 캔디를 둘 이상이 먹을 순 없다는 것, 그리고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분배 조건에 의해 캔디를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게요. 자, 배분을 시작해봅시다.</p> <p>학생: (왼쪽 앞에 앉은 학생부터 캔디를 가져간다. 오른쪽 앞(권력이 가장 약하다고 가정된 사람)에 있는</p>	<p>10분</p>

	<p>학생은 남은 캔디가 없어 받지 못한다.)</p> <p>교사: 자, 어떻게 배분이 되었나요? 모두가 캔디를 받았나요?</p> <p>학생: 아니오.</p> <p>교사: 캔디를 분배받지 못한 친구들, 손을 들어볼까요?</p> <p>학생: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가정된 학생들이 손을 든다.)</p> <p>교사: 이런, 아예 받지 못한 친구들이 생겼네요. 자, 그럼 다음에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별로 논의해봅시다. 다음에도 캔디는 한 조에 3개만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선, 논의는 모두 참여하겠지만, 어떻게 배분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권력이 가장 강한 학생입니다. 또한, 각자가 지닌 권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쭉 이어질 것이고, 지금 새로 결정하게 되는 분배 방식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어질 분배 방식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세요. 이번에는 너가 먼저 고르고 다음엔 너가 먼저 고르고, 이런 유동적인 분배 방식은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봐요. (시간을 준 후) 자,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3조는 어떻게 결정했나요?</p> <p>학생: 지금 이대로 하기로 했어요. (불만 표출)</p> <p>교사: 이대로 하기로 했군요. 5조는 어떻게 결정했나요?</p> <p>학생: 저희도 이대로 하기로 했어요. (불만 표출)</p> <p>교사: 다들 이렇게 하기로 했군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요?</p> <p>학생: 권력 많은 애가 자기가 먹고 싶어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어요. 결정도 그 아이가 하고, 너무 불공평해요.</p>	
<p>학습안내 제시 2</p>	<p>교사: 다들 불만이 많아 보이네요. 모든 조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각 조가 무엇이라고 가정하자고 했죠?</p> <p>학생: 사회요.</p> <p>교사: 맞아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론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각 조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권력 많은 사람이 결</p>	<p>10분</p>

	<p>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문제일까요?</p> <p>학생: 네. / 잘 모르겠어요. / 캔디가 3개밖에 없었어요.</p> <p>교사: 캔디가 셀 수 없이 많았어도 모든 조가 갈등을 겪었을까요? / 그렇지요. 캔디가 부족했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갈등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문제를 풀면서 구체화시켜 볼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겪었던 상황을 생각하며 유인물의 [활동 2]를 해 봅시다.</p> <p>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선 대응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p> <p>학생: 캔디는 희소자원에, 권력이 쏠던 친구는 지배 계급에, 권력이 약했던 친구는 피지배계급에 각각 대응시켰어요.</p> <p>교사: 아주 훌륭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갈등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갈등론에서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a부터 e까지의 문장을 완성하면서 정리해봅시다. 1조부터 한 문장씩 완성해서 발표해 볼게요.</p> <p>학생: (1조)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2조)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에 관하여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3조) 사회구조나 제도는 지배 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이다. (4조) 사회 질서나 안정은 지배 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5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계급 간 갈등이 필연적이다.</p> <p>교사: 여러분 모두 갈등론의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갈등론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감이 오나요?</p> <p>학생: 네.</p> <p>교사: 여러분은 갈등론의 내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완전하게 공감이 되나요?</p> <p>학생: 아니요.</p> <p>교사: 왜 그렇게 생각하죠?</p> <p>학생: 너무 극단적이에요. / 그래도 우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 지배랑 피지배랑 맨날 싸우는 건 아니지 않나요?</p>	
--	--	--

	<p>교사: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갈등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갈등론은 우리 사회가 단순히 지배-피지배의 2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설명하기엔 무척이나 복잡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또,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하는데, 사회 자체를 갈등의 장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렵죠.</p>	
<p>수행 유발</p>	<p>교사: 자, 기능론과 갈등론이 각각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배웠으니, 두 개념을 적용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유인물 뒤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풀었다면 조원들과 함께 갑과 을이 각각 기능론/갈등론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답을 공유해보세요.</p>	<p>3분</p>
<p>피드백 제공</p>	<p>교사: 논의까지 완료했나요? 여러분, 갑은 무슨 입장인가요? 학생: 갈등론이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했죠? 학생: 특정 집단이라는 것이 지배 계급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교사: 아주 훌륭합니다. 갑은 특정 집단, 즉 지배 계급이 사회구조와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며, 사회구조와 제도의 유지 여부는 이들의 이익에 맞춰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을은 자동으로 기능론이 되겠죠? 왜 기능론이라고 생각했나요? 학생: 안정과 유지라는 말이 나와서요. 교사: 예리하네요. 갈등론과는 달리,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번 수업에서 강조했듯이, 사회 안정과 유지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이 선지는 옳은 선지인가요? 학생: 아니요. 교사: 왜 그렇죠? 5조에서 대답해볼까요? 학생: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건 기능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사: 아주 훌륭합니다. 1번 선지는 갈등론이 아닌 기능</p>	<p>7분</p>

	<p>론에 관한 설명이죠. 2번 선지는 옳은가요? 4조?</p> <p>학생: 아니요.</p> <p>교사: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p> <p>학생: 사회가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건 갈등론의 입장이에요.</p> <p>교사: 아주 잘했어요.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상태를 강조하는 건 기능론이 아닌 갈등론의 입장이죠. 기능론에서는 사회에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방 회복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선지로 넘어가 볼까요? 3조는 어떻게 봤나요?</p> <p>학생: 옳은 선지예요.</p> <p>교사: 왜 그렇게 생각했죠?</p> <p>학생: 갈등론에서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 잘 모르겠어요.</p> <p>교사: 갈등론에서는 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보았죠?</p> <p>학생: 지배 계급에 의해서요.</p> <p>교사: 맞아요. 갈등론은 그렇게 만들어진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안정된 합의라고 보나요, 억압이라고 보나요?</p> <p>학생: 억압이요.</p> <p>교사: 맞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보았을 때 사회가 발전하려면 현 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까요?</p> <p>학생: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해요.</p> <p>교사: 바로 그거예요. 3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왜 갈등론의 논리에 부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p> <p>학생: 네.</p> <p>교사: 좋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2조?</p> <p>학생: 틀렸어요. 갑이랑 을 모두 거시적 관점이에요.</p> <p>교사: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저번 수업시간에 배웠던 “거시적 관점”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입니다.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갈까요, 1조?</p> <p>학생: 틀렸어요. 둘 다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제도가 개인을 초월한다고 봐요.</p> <p>교사: 아주 훌륭합니다. 4번 선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p>	
--	---	--

	되겠죠.	
평가	<p>교사: 여러분 모두 기능론과 갈등론 각각의 입장을 잘 구분하여 파악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있을 수행 평가도 이런 형식의 문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처럼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다만, 한 문제는 서술형으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기능론이나 갈등론 중 한 입장을 선택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수행평가 문제들은 오늘 배운 내용만 잘 복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할 거예요.</p>	1분
파지와 전이 향상	<p>교사: 여러분,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시적 관점에 관한 내용을 짧게라도 복습하고 오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p> <p>학생: 네. 감사합니다.</p>	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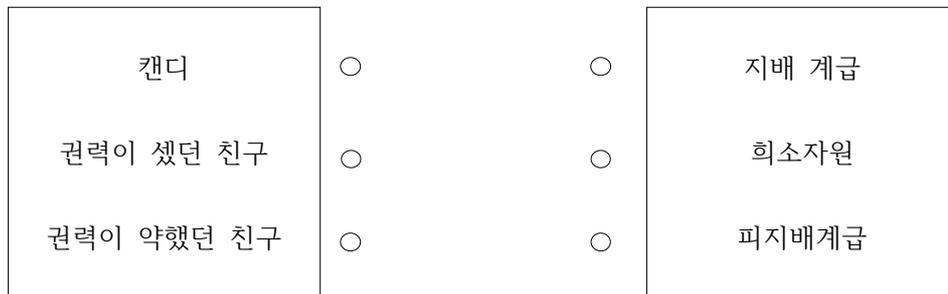
유인물 자료 - 앞 페이지

[활동 1]

- a.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들은 각자 뚜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b. 우리 몸의 장기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한다.
- c.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ex. 질병)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활동 2]

▶ 본인이 속한 조가 하나의 사회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의 각 요소는 사회의 어떤 요소에 대응하는지 짝지어 보세요.



▶ 위의 대응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괄호에 있는 말 중 적절한 말을 골라보세요.

- a.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 / 화합과 공존)의 장이다.
- b.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에 관하여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이 (가능 / 불가능)하다.
- c. 사회구조나 제도는 (지배 / 피지배) 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 내려놓고), 계급을 (재생산 /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이다.
- d. 사회 질서나 안정은 (지배 계급의 강요나 억압 /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 e.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계급 간 갈등이 (필연적 / 병리적)이다.

유인물 자료 - 뒤 페이지

[문제] - 2020 <수능완성> p.8 Q.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사회구조와 제도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고 적용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사회구조와 사회 제도는 유지되고 전체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을: 글썄요. 사회구조와 제도는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들은 이를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가 스스로 균형 상태를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가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상태에 있다고 본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사회구조와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수행평가지 [예시]

Q.1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성세대는 분배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청년층이 주류 사회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을: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을 얻게 되고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합니다. 청년층이 기성세대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고 경험을 쌓아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청년층 빈곤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갑은 한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구조는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에게 손해를 준다고 본다.
- ② 을은 집단 간 갈등이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사회 구성원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규범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 관계와 사회적 합의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갑은 을에 비해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한다.

Q.2

다음은 언론사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를 읽고,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기능론 혹은 갈등론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조건]에 맞게 분석하시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16일) 새벽 6시 30분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을 제외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했고 서울시는 시내 버스의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총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의 지하철 운행을 평소대로 하고 그 외 시간대는 80% 운행률을 맞추겠다고는 하지만 오늘부터 사흘 동안 어느 정도의 혼란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JTBC,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비상수송대책 가동", 2019.10.16. 기사 발췌

[조건]

- a. 갈등론과 기능론 중 어떤 입장을 선택했는지 밝히시오.
- b.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두괄식으로 밝히고, 기능론 혹은 갈등론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 및 해석하시오.
- c.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능론 혹은 갈등론의 입장에서 예측해보시오.

참고문헌 및 자료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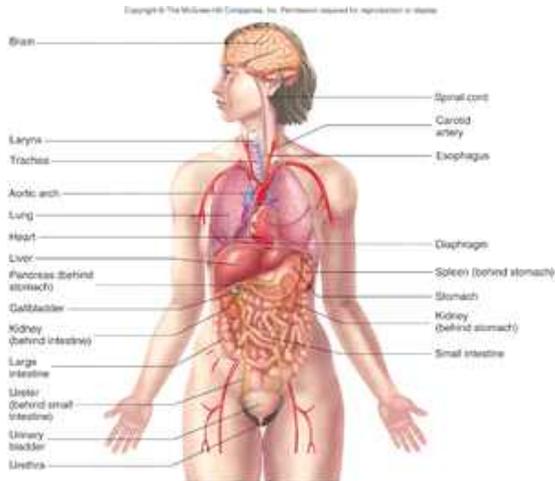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2019). EBS 수능특강 사회문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2019). EBS 수능완성 사회문화.

기사 자료

<http://news.jtbc.joins.com/html/493/NB11895493.html> (JTBC,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비상수송대책 가동", 2019.10.16. 기사.)

사진 자료



Athens Academy Mrs. Chester's Human Biology, Unit 1 - The Human Organism
(http://www.athensacademy.net/teachers/nchester/humanbiologyhonors/2008/08/unit_one_the_human_organism.html)

영상 자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5153&pDate=20191015